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영농폐기물·쓰레기 수거

윤추홍식 | 승인 2024.10.27 21:20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최근 경상북도 성주군 자산리에 위치한 자산저수지를 찾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은 쾌적하고 청정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다.

2018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이번 캠페인에 공사 또한 발맞춰 적극 참여해왔다.

성주지사 직원들은 자산저수지에서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마대자루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했다. 영농 후 농한기에 접어들고 있는 기간에 맞춰 방치되고 누적된 저수지 주변 영농폐기물들을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에 힘썼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